

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II 코린토 6, 16)						
8월 23일 연중 제21 주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신 카이사리아 필리피는 당시 로마 제국의 최첨단 기술과 거대한 권력이 집약된 초대형 도시였다. 기원전 2년경 헤로데 필립보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웅장한 신전을 지어 바친 이 도시는, 맑은 지하수가 솟아나는 웅장한 헬몬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산 중턱에는 로마 황제의 거대한 동상이, 그 맞은편에는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바알 신상이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다. 돈과 권력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화려한 건물 숲 한복판에서, 먼지투성이 옷을 입은 가난한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뜬금없는 물어보신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등 당시 대중적 인기가 높았던 예언자들의 이름을 대며 분위기를 파악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여론 수집이 아니었다. 눈앞의 로마 황제 동상과 부의 상징인 바알 신상을 가리키듯,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핵심을 찌르신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교리 시험이 아니었다. "저기 서 있는 권력의 황제와 부를 약속하는 바알, 그리고 아무런 세속적 힘도 없어 보이는 나(예수님) 중 누구를 너희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겠느냐?"는 인생을 건 질문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앞으로 나와 고백한다.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황제 신전 앞에서의 이 고백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 방정식인 권력과 재물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올인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신앙 고백이었다. 이에 예수님은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참 행복하다!"라고 극찬하신다.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이 흥미롭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다." 즉, 베드로가 머리가 좋아 서나 대단해서 맞힌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뜻이다.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반문하며 하느님과 더불어 있지 않고,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한다.						
바오로 사도는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 둡니다. 하느님의 영에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할 수 없고, 성령에 힘입지 않고 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1코린 12,3)라고 한다. 따라서 베드로의 고백은 그의 인간적 능력이 아닌, 하느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은총)이었다.						
예수님은 이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신다. 곧, 교회가 베드로라는 사람의 유약한 인성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베드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할 악한 인물이다. 교회를 떠받치는 진짜 기둥은 베드로 개인의 능력치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에게 선물하신 신앙 고백 그 자체다.						
성령의 은총 없이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를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알아보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손에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쥐어졌다는 증거가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쥐었으니 이제 그가 교회의 주인이나 천국의 주인이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제1독서(이를 보면 그 해답이 명확히 드러난다. 하느님께서서는 교만한 시종장 세브나를 쫓아내고 엘야킴에게 다윗 집안의 열쇠를 맡기신다. 하지만 엘야킴은 왕이 아니라 히즈키야 임금을 모시는 궁궐의 시종, 즉 총괄 지배인(집사)이었다. 고대 사회에서 열쇠를 메고 다니는 이는 왕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받아 공간을 열고 닫는 총직한 시종이었다. 따라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열쇠 역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하늘나라를 성실히 관리하라는 지배인인 셈이다.						
가톨릭교회는 교황님이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간수하는 '첫 번째 시종' 역할을 맡고 있다고 믿는다. 교황님 역시 교회의 주인이 아닌 하느님의 종으로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세상을 이끌어간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매일 자신만의 '카이사리아 필리피'에 서 있다. 통장 잔고라는 바알 신전과, 사회적 성공과 지위라는 황제 동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숭배를 요구한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슬며시 우리에게 물으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간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봉헌	보편지향기도
26년 8/23	9시	박은미(안젤라)	최용남(베드로)	최혜숙(젬마)	김화룡(수산나)
	11시	정형식(저스틴)	표민규(아킬레오)	표혜진(레지나)	김소원(사라)
26년 8/30	9시	소은주(크리스티나)	이정명(세실리아)	최경애(아가다)	박유자(요안나)
	11시	김경숙(클로틸다)	서원복(로사리아)	이향례(자넷)	김영자(마리안나)

공 동 체 소 식

◎ ‘Generation to Generation Campaign’
‘세대에서 세대로 기금 모금’

시카고 대교구에서 실시하는 ‘세대에서 세대로’의 기금모금에 교우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교우들께 배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문의하세요. 납부한 금액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되며 수표를 쓸 때 수취인을 **G2G** 혹은 **G to G**로 쓰십시오. 본당 목표: \$440,000.00 (5년 동안)

◎8월 야외 울뜨레아
▶일시: 8월 23일(일) 오전 11시30분-여재동베드로덱 2414 Indian Ridge Dr. Glemview IL 60026

◎구역 반장 교육 안내
▶일시: 8월 30일(일) 오전 10시30분 신관1호실
각 구역 반장님들은 참석해 주십시오.

◎빈첸시오 월레모임
▶일시: 8월 30일(일) 9시 미사후 신관4호

◎북미주 한인 중북부 여성 제 18차 꾸르실료 교육
▶일시: 9월 4일(금)오후 5시~9월 7일(월)오후 5시
▶장소: Bellarmine Jesuit Retreat House
참가자: 이향례 (자넷), 임장미(모니카), 표혜진(레지나)
봉사자: 김경순(마리아 막달레나), 권형숙(요안나) 김지현(비비안나)
교육 참가자와 봉사자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7년 부활세례반 예비자 모집 안내
▶교리반시작: 2026년 9월 13일(일)오전 9시 30분
▶청년교리반: 2026년 9월 12일(토)오후 4시 30분

◎2026-2027 주일학교(CCD), 한국학교 학생모집
▶일정: 2026년 9월 13일 ~ 2027년 5월 2일
▶주일학교(CCD): 매주 일요일 오전 9:20 ~10:30
▶한국학교: 오후 12:30 ~ 2:30
▶문의 및 등록: 성당 사무실, 표혜진 (kmckckoreanschool@gmail.com)

◎Fr. 단웨버(Donald Webber) 영적꽃다발 안내
9월 6일, 80회 생신을 맞으시는 단 웨버 신부님을 위한 ‘영적꽃다발’ 기도를 8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알립니다
2026년 8월 21일(금) 오전 10시 St. Michael the Archangel Cemetery에서 조갑묵(스테파노)형제님 아들 조문기(샤스땅야고보)의 하관예절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하느님나라에서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본당 대표 전화: 773 - 554 - 5426

◎본당 새 수녀님 부임을 환영합니다
이정희(마틸다)수녀님께서 지난 17일(월) 시카고본당에 부임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수도여정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봉성체 안내
8월 28일(금) 환자 봉성체가 필요하신 교우들은 사무실 혹은 수녀님께 신청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임정섭(다니엘), 임기홍(스테파노), 이의철(요한), 이향례(자넷), 지석철(스테파노), 주윤철(요셉), 고 연(요한), 정영옥(모니카), 심재국(베드로), 차효길(스테파노), 강성철(요한보스코), 김재천(베드로)

○교무금 \$ 1,870.00 ○주일헌금 \$ 1,614.00
○감사헌금 \$ 300.00 ○영어헌금 \$ 130.00
○성물방입금 \$ 100.00 ○성모승천대축일 \$ 531.00

■감사헌금: 고 연(요한), 김정자(엘리사벳), 김창일(요셉)

『2026년 8월 23일 미사 지향』

■생미사
김앤디(안드레아), 지석철(스테파노), 엄광식(토마스), 유명주(마가렛), 커티스 심(다두), 조이스 심(진), 이금동(케빈), 송영현, 모니카회 회원들을 위하여

■연미사
이궁구(마이클), 차연주(리사), 김선경(임마콜라따), 이선애(마틸다), 주영선(소피아), 음규진(요셉),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 (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 (그레고리오), 백승재(야고보), 김성애(마리안나), 김진봉(베드로), 강정웅(요한), 허순이(마멜다), 이광숙(카타리나), 정영순(아가다), 임영일(바오로), 조문기(샤스땅야고보), 차춘자, 박승옥(요한)

8월 25일(화):
최경애(데레사) (생미사)

김선경(임마콜라따), 김순열(카타리나), 김성애(마리안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백승재(야고보),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그레고리오) (연미사)

8월 26일(수)~8월 29일(토):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안드레아), 백승재(야고보),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그레고리오) (연미사)
8월 27일(목): 이광숙(카타리나), 정영순(아가다) (연미사)
8월 28일(금): 주영선(소피아) (연미사)